

산림 경영주체별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이용실태 -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를 대상으로 -

강진택^{1*} · 전주현² · 이성연³ · 전주현¹

¹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²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³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Condition of Use on Management Support System of Private Forest by Forest Ownership Type - Focus on subjects of Sincere forest manager, Forest successor and Forest owner -

Jin Taek Kang^{1*}, Jun Heon Jeon², Seong Youn Lee³ and Ju Hyeon Jeon¹

¹Division of Forest Industry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²Division of Research Planning and coordinat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³Warm Temperate and Subtropical Forest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gwipo 63582, Korea

요약: 본 연구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립가 57.8%, 임업후계자 47.6%인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 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독립가 79.2%, 임업후계자 58.6%인 반면 일반산주는 28.6%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원을 신청하기 못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난 인지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효과정도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독립가 28.5%, 임업후계자 36.8%, 일반산주 41.5%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경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유림 지원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propose the improvement by looking into the use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and then analyzing the status of support system and problems among forest owner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was 57.8%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47.6% in forest successors, but only 17.6% in forest owner. The application experience was 79.2%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58.6% in forest successors, but 28.6% in forest owner which was significantly low as was shown in the recognition. Response on 'not knowing the support system' as the reason they were not able to ask for support was 36.1%, 43.0%, 78.6% in sincere forest managers, forest successors, and forest owner respectively in that order, which were the same results with the recognition. In the contrast, the effects of support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were higher in forest owner tha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forest successors, and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as also 28.5% in sincere forest managers and 36.8% in forest successors and 41.5% in forest owner. It turned out that forest owner who had somewhat low numbers of application had rather high satisfaction on overall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active forest management from forest owner who take up most of forest owners in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n private forest support system is needed to improve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orestry Association should come up with active plans for public relations and support.

Key words: private support business, sincere forest manager, forest successor, forest owner, business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orresponding author
E-mail: beg8bune@korea.kr

서론

우리나라의 사유림 면적은 4,876,759 ha('71)에서 4,586,268 ha('93), 4,337,880 ha('10)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산림면적 대비 68.1%('10)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사유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2010년 기준 117.7 m³/ha로 국유림 148.5 m³/ha, 공유림 123.4 m³/ha, 전체 산림 평균 임목축적 125.6 m³/ha 보다 낮은 축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 규모는 1971년에 2.8ha에서 2013년 말 2.1 ha로 22.2% 감소한 반면, 산림 필지는 1971년에 2,474천 필지에서 1993년에 3,542천 필지로, 2013년 말 4,053천 필지로 1971년 대비 63.8%나 증가하여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산림필지 세분화의 영향으로 산림소유자수는 전국 기준으로 1971년도에는 1756천명에서 1985년도 1,911천명, 1993년에는 1,954천명, 2013년 말 2,095천명으로 점차 산주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 기준 소·부채 산주로 이를 다시 구분하여 보면, 소채산주는 1971년에 1,486천명(84.4%)에서 1993년에는 1,129천명(55.1%), 2013년에는 1,046천명(44.0%)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부채산주의 경우 1971년에 275천명(15.6%)에서 1993년에는 919천명(44.9%), 2013년에는 1,333천명(56.0%)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유림의 소유규모를 살펴보면 1 ha 미만의 산림소유자가 2013년 말 전체 산림소유자의 65.7%로 1985년 대비 20.3%나 증가하였으며, 100 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는 1,818명으로 0.1%에 불과하다. 특히 1 ha 미만의 산주가 전체 산림소유자수의 65.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Cho and Koo, 1981; Kim, 1984; Kim et al., 2014; Kim, 2015). 합리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의 규모화가 필요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산림 파편화로 인해 사유림 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협업경영제도, 대리경영제도, 사유림 경영대행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하였다. 또한 조림, 숲 가꾸기, 국내재 생산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목재가격의 정체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 산림경영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편 사유림 경영과 관련된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1975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Kor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KGFMP)에 의해 실시된 임업분야 기술협력사업으로 사유림경영개선사업이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유림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가 시작되었다(Cho, 1981; Kim, 1984; 1988). 이후, 사유림에 관한 연구로 Seo et al.(2001)은 산주 유형별 산림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Kim(1992)은 일반산주, 정책지원집단, 그리고 50 ha 미만과 50 ha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산림투자액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사유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의 연구는 사유림 지원제도와 사유림의 규모화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Bae et al.(2003)은 사유림 영림계획 이행과 관련한 현행 세제 혜택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im(2011)은 농가단위 농업지원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규모, 보조금과 농가소득의 관련성, 보조금이 농업구조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농업보조금 편성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Kim et al.(2014) 등은 도농 복합 도시 산촌 지역의 사유림 파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규모별, 소유자 거주지별, 연령별, 용도별, 필지수별 현황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와 주민 청취조사를 통해 사유림 파편화가 임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Kim et al.(2014) 등은 산림복합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변화, 그리고 임업인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유림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Kim et al.(2015)은 사유림의 규모화, 집약화 경영모델 제시를 통한 사유림 소득증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과거에 비해 현재 사유림의 임상조건은 상당히 호전되어 산림경영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며, 과거의 목재생산중심에서 산림의 복합경영과 6차산업화를 통한 산림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유림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각 분야별로 농림사업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분야에도 경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분야는 생산 및 유통개선분야와 산림자원조성분야로 대별되며, 생산 및 유통개선분야는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융합자금지원,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임산물수출사업 등 6개 사업이 해당되며, 산림자원조성분야는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농림사업 중 임업 및 산촌분야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수행하였다.

자료 및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 경영 지

Table 1. Conditions of support system on private forest management.

| Projects | Subsidy rate (%) | | | | Interest rate (%) |
|---|------------------|------------------|-------|----------------|-------------------|
| |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 Loan | Self-allotment | |
| Planning project for forest management | 50 | 50 | - | - | - |
| Support project of comprehensive fund for forest management | 0~30 | 0~30 | 0~100 | 0~40 | 1.5~4 |
| Project to increase forest income | 20~50 | 20 | 0~20 | 30~60 | 3 |
| | 20~70 | 20~60 | 0~20 | 0~40 | 3 |
| Expansion project for forest biomass | 50 | 20 | - | 30 | - |
| | 30 | 40 | - | 30 | - |
| Income support project for Baekdudaegan residents | 50 | 40 | - | 10 | - |
| | 70 | 30 | - | - | - |
| Export project of forest products | 50~100 | 0~20 | - | 0~50 | - |
| | 80 | 10 | - | 10 | - |
| Afforestation & Forest trending work | 50~70 | 20~50 | - | 0~10 | - |
| | 50 | 50 | - | - | - |

Table 2. Design of the survey sample.

| Classification | Category |
|----------------------------|---|
| Subject | Sincere forest manager, Forest successor, Forest owner |
| Number of population | Sincere forest manager of 530 persons, Forest successor of 4,677 persons, Forest owners of 2,084,204 persons |
| Sampling | Stratified sampling (proportional allocation to the square root) |
| Criteria of stratification | District / owned area |
| Survey sample | Sincere forest manager of 173 persons (21.1%), Forest successor of 292 persons (35.7%), Forest owner of 353 persons (43.2%) |

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대상사업인 산림청의 임업 및 산촌분야 6개의 자율사업(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 사업)과 1개 공공사업(조림·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산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2. 조사 표본

본 연구는 사유림경영 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주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산출은 지역 및 소유면적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제공된 비례할당)에 의한 표본조사로 설계하였다(Table 2).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의 경우 전문임업인 열람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 수를 설정하였으며, 일반산주는 임업통계연보(2013, Korea Forest Service)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산주 모집단에는 독립가, 임업후계자 수가 포함되었으며, 산주 수는 1인이 각 시도별로 수필지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 중복 계산되었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영주체는 주로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이기 때문에 전체 경영주

체 표본 중 각각 21.1%, 35.7%로 진행하였다. 일반산주의 경우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 및 이용경험이 극히 적음을 고려하여 43.2%의 비중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3. 조사 분석 변수 및 조사 방법

2013년 임업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산주 분포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주체는 3개 유형(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 소유지역은 5개 권역(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그룹화 하였으며, 소유면적 또한 5개 규모(2 ha미만, 2~5 ha 미만, 5~10 ha 미만, 10~50 ha 미만, 50 ha 이상)로 그룹화 하였다(Table 3). 조사 방법은 경영주체별 조사는 전화 및 현장방문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영주체가 생산현장에 있어 부재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현장방문에 의한 직접 대면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화 및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실시하였다.

4. 분석내용 및 분석 방법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한 경영주체별(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¹⁾) ①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 ②

Table 3. Variable and category on survey.

| Classification | Variable | Scope of variable |
|----------------|----------------|--|
| Forest manager | Owner Type | Sincere forest manager / Forest successor / Forest owner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Kangwon District / Chungcheong District / Jeolla District / Gyeongsang District |
| | Owned area | Under 2 ha / 2~5 ha / 5~10 ha / 10~50 ha / Over 50 ha |

Table 4. Conditions of private management by age group.

| Classification | | Sample No. | Age(yr) | | | | | Non response | Total |
|----------------|------------------------|------------|---------|-------|-------|-------|------|--------------|-------|
| | | | 40< | 41~50 | 51~60 | 61~70 | 70< | | |
| Total | | 818 | 2.8 | 15.5 | 38.8 | 23.2 | 18.1 | 1.6 | 100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173 | 0.6 | 8.7 | 32.4 | 27.7 | 26.6 | 4.0 | 100 |
| | Forest successor | 292 | 6.2 | 29.8 | 53.8 | 7.5 | 0.7 | 2.1 | 100 |
| | Forest owner | 353 | 1.1 | 7.1 | 29.5 | 34.0 | 28.3 | 0.0 | 100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57 | 3.5 | 12.3 | 33.3 | 29.8 | 21.1 | 0.0 | 100 |
| | Gangwon District | 112 | 1.8 | 13.4 | 39.3 | 28.6 | 16.1 | 0.9 | 100 |
| | Chungcheong District | 193 | 1.0 | 19.2 | 37.8 | 23.8 | 18.1 | 0.0 | 100 |
| | Jeolla District | 232 | 4.3 | 18.1 | 40.9 | 18.1 | 17.7 | 0.9 | 100 |
| | Gyeongsang District | 224 | 7.2 | 23.5 | 76.5 | 47.4 | 37.3 | 9.2 | 100 |
| Owned area | Under 2 ha | 157 | 2.5 | 15.3 | 33.1 | 27.4 | 21.7 | 0.0 | 100 |
| | 2~5 ha | 166 | 3.6 | 16.9 | 44.6 | 17.5 | 14.5 | 3.0 | 100 |
| | 6~10 ha | 156 | 7.1 | 20.5 | 44.2 | 16.0 | 11.5 | 0.6 | 100 |
| | 11~50 ha | 232 | 0.9 | 15.5 | 39.7 | 23.7 | 17.7 | 2.6 | 100 |
| | Over 50 ha | 107 | 0.0 | 6.5 | 28.0 | 35.5 | 29.0 | 0.9 | 100 |
| Residence | Yes | 669 | 1.8 | 16.3 | 39.8 | 22.6 | 17.9 | 1.6 | 100 |
| | No | 149 | 7.4 | 12.1 | 34.2 | 26.2 | 18.8 | 1.3 | 100 |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절차 인지도 ③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경험 여부 ④ 사유림 경영 지원 미 신청 이유 ⑤ 사유림 경영의 애로사항 ⑥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도움 효과 ⑦ 사유림 지원제도에 대한 산주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적 분석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사유림의 경영주체, 소유지역 그리고 소유면적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과 X²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유림 경영의 일반적 현황

사유림 경영주체자들을 대상으로 사유림경영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산림면적, 거주 지역, 부재산주 여부 등의 일반 현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경영주체별 연령분석에서 50대 이상이 독립가 86.7%, 임업후계자 62%, 일반산주 91.8%로 대부분 50대 이상의 산주들이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후계자에서 40대가 29.8%로 다른 경영 주체보다 다소 젊은층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50대 이하에서 산림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15)의 사유림의 규모화 경영을 위한 산주 의식조사에서도 산림소유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이중 70대가 71.4%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임업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노령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지역별 경영주체수는 전라권이 232명(28.4%) 가장 많으며, 소유면적은 11~50 ha(28.4%)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면적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부재산주는 18.2%로 우리나라 평균(54%)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해 산주들이 어느 정도 인지(5점 척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산주 평균의 경우 36.8%(알고 있다 27.5% + 잘 알고 있다 9.3%)가 알

¹⁾ 일반산주; 본 연구에서 「일반산주」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로 지정 받지 않은 자를 지칭함.

Table 5. Awareness on support system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Unit : %, Five-point scale

| Classification | | Not at all | A little unaware | Normal | Aware | Well aware | Average | Statistics (F) |
|----------------|------------------------|------------|------------------|--------|-------|------------|---------|---------------------|
| Average | | 7.0 | 39.6 | 16.6 | 27.5 | 9.3 | 2.93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2.9 | 17.3 | 22.0 | 39.3 | 18.5 | 3.53 | 98.242 (p=0.000) |
| | Forest successor | 4.5 | 27.1 | 20.9 | 33.9 | 13.7 | 3.25 | |
| | Forest owner | 11.0 | 60.9 | 10.5 | 16.4 | 1.1 | 2.36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12.3 | 40.4 | 3.5 | 36.8 | 7.0 | 2.86 | 8.337 (p=0.000) |
| | Gangwon District | 6.3 | 20.5 | 11.6 | 43.8 | 17.9 | 3.46 | |
| | Chungcheong District | 7.8 | 35.2 | 20.2 | 25.9 | 10.9 | 2.97 | |
| | Jeolla District | 6.9 | 44.0 | 20.7 | 20.3 | 8.2 | 2.79 | |
| | Gyeongsang District | 5.4 | 48.2 | 15.2 | 25.9 | 5.4 | 2.78 | |
| Owned area | Under 2 ha | 8.9 | 63.7 | 11.5 | 14.0 | 1.9 | 2.36 | 18.156 (p=0.000) |
| | 2~5 ha | 9.0 | 43.4 | 16.9 | 22.9 | 7.8 | 2.77 | |
| | 6~10 ha | 7.7 | 35.3 | 16.7 | 32.7 | 7.7 | 2.97 | |
| | 11~50 ha | 4.3 | 30.6 | 17.2 | 36.2 | 11.6 | 3.20 | |
| | Over 50 ha | 5.6 | 24.3 | 22.4 | 28.0 | 19.6 | 3.32 | |
| Residence | Yes | 5.8 | 41.0 | 15.7 | 28.4 | 9.1 | 2.94 | 22.354 (p=0.000) |
| | No | 12.1 | 33.6 | 20.8 | 23.5 | 10.1 | 2.86 | |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6%(전혀 모름 7.0% + 약간 모름 39.6%)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원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독립가는 57.8%(알고 있다 39.3% + 잘 알고 있다 18.5%), 임업후계자는 47.6%(알고 있다 33.9% + 잘 알고 있다 13.7%)로 나타난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알고 있다 16.4% + 잘 알고 있다 1.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일반산주들이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소유 지역별로는 강원권이 5점 평균 3.4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림면적이 높고 산림경영에도 다소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권은 2.78점에 그쳤다. 그리고 소유면적이 많을수록 인지도 또한 정비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임업후계자와 독립가의 경우 일반산주에 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 면적이 많고 경영에도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주들의 소재지 거주 여부에 따라 사유림 경영 지원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소재 산주 53.2%, 부재 산주 54.4%로 소재 산주 부재 산주간에 인지도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부재 산주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재 산주들은 주로 인근 혹은 다른 곳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학력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유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산림을 직접 경영하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경영주체(F=89,128, p=0.000), 소유지역(F=7.298, p=0.000), 소유면적(F=19,564, p=0.000)에 대한

지원 절차 인지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절차 인지도

산주들의 사유림 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절차 인지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주 평균 2.92점으로 나타나 평균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가 3.5점, 임업후계자 3.2점, 일반산주 2.4점으로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는 사유림 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산주는 인지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산주들 중에 사유림 경영을 위한 지원 절차 인지도를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로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가는 56.6%, 임업후계자는 43.5%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산주는 18.1%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 산주의 경우 지원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이 반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유지역별로는 강원권이 3.4점으로 사유림 경영 지원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인권은 2.68점으로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면적별로는 면적이 많을수록 사유림 경영 지원 절차 인지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주들의 소재지 거주 여부에 따라 사유림 경영 지원 제도의 지원 절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소재 산주 36.3%, 부재 산주 30.9%가 지원 절차

Table 6. Awareness on application process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Unit : %, Five-point scale

| Classification | | Not at all | A little unaware | A little aware | Aware | Well aware | Average | Statistics (F) |
|----------------|------------------------|------------|------------------|----------------|-------|------------|---------|---------------------|
| Average | | 4.2 | 43.6 | 16.9 | 27.0 | 8.3 | 2.92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1.2 | 22.5 | 19.7 | 38.7 | 17.9 | 3.50 | 89.128 (p=0.000) |
| | Forest successor | 3.1 | 28.8 | 24.7 | 32.2 | 11.3 | 3.20 | |
| | Forest owner | 6.5 | 66.3 | 9.1 | 17.0 | 1.1 | 2.40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7.0 | 54.4 | 7.0 | 26.3 | 5.3 | 2.68 | 7.298 (p=0.000) |
| | Gangwon District | 3.6 | 27.7 | 8.9 | 44.6 | 15.2 | 3.40 | |
| | Chungcheong District | 6.2 | 38.9 | 19.2 | 26.4 | 9.3 | 2.94 | |
| | Jeolla District | 1.3 | 50.4 | 19.8 | 21.6 | 6.9 | 2.82 | |
| | Gyeongsang District | 4.9 | 46.0 | 18.3 | 24.6 | 6.3 | 2.81 | |
| Owned area | Under 2 ha | 5.7 | 70.1 | 9.6 | 13.4 | 1.3 | 2.34 | 19.654 (p=0.000) |
| | 2~5 ha | 4.8 | 47.0 | 18.1 | 24.1 | 6.0 | 2.80 | |
| | 6~10 ha | 5.1 | 38.5 | 19.9 | 28.2 | 8.3 | 2.96 | |
| | 11~50 ha | 2.6 | 31.0 | 22.0 | 33.6 | 10.8 | 3.19 | |
| | Over 50 ha | 2.8 | 34.6 | 10.3 | 35.5 | 16.8 | 3.29 | |
| Residence | Yes | 3.6 | 43.5 | 16.6 | 27.8 | 8.5 | 2.94 | 18.156 (p=0.000) |
| | No | 6.7 | 44.3 | 18.1 | 23.5 | 7.4 | 2.81 | |

Table 7. Experience of support system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Unit: %

| Classification | | Sample Number | Yes | No | Statistics (X2) |
|----------------|------------------------|---------------|------|------|----------------------|
| Average | | 818 | 50.0 | 50.0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173 | 79.2 | 20.8 | 132.119 (p=0.000) |
| | Forest successor | 292 | 58.6 | 41.4 | |
| | Forest owner | 353 | 28.6 | 71.4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57 | 59.6 | 40.4 | 15.626 (p=0.004) |
| | Gangwon District | 112 | 63.4 | 36.6 | |
| | Chungcheong District | 193 | 44.0 | 56.0 | |
| | Jeolla District | 232 | 51.3 | 48.7 | |
| | Gyeongsang District | 224 | 44.6 | 55.4 | |
| Owned area | Under 2 ha | 157 | 21.0 | 79.0 | 95.663 (p=0.000) |
| | 2~5 ha | 166 | 41.6 | 58.4 | |
| | 6~10 ha | 156 | 51.9 | 48.1 | |
| | 11~50 ha | 232 | 67.7 | 32.3 | |
| | Over 50 ha | 107 | 64.5 | 35.5 | |
| Residence | Yes | 157 | 51.6 | 48.4 | 115.126 (p=0.000) |
| | No | 107 | 43.0 | 57.0 | |

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평가에서는 부채 산주가 약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원 절차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부채 산주들이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산림을 경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경영주체(F=89,128, p=0.000), 소유지역(F=7.298, p=0.000), 소유면적(F= 19,564, p=0.000)에 대한 지원 절차 인지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제도 인지도 조사결과

와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산림이 많은 강원권과 소유면적이 큰 산주들은 산림에서 주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 경험 여부

경영주체의 사유림 경영과 관련된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산주 평균 50%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립가의 경우 79.2%, 임업후계자의 경우 58.6%가 지원을 받은 반면에 일반 산주의 경우에는 28.6%만이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산주들의 지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를 소유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63.4%), 경인권(59.6%), 전라권(51.3%), 경상권(44.6%), 충청권(44.0%)의 순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면적별로 보면 11~50 ha 이하와 51 ha 이상이 각각 67.7%, 64.5% 사유림 경영 관련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2 ha 미만에서는 21.0%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소유면적이 큰 계층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소유 면적이 적은 계층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주들의 소재지 거주 여부에 따라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의 경험 여부에서는 소재 산주 51.6%, 부재 산주 43.0%가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 산주의 43.0%가 지원경험이 있다는 것은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지원금을 자신의 산림 경영에 잘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유림 경영 지원 미 신청 이유

산주들이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가 전체 산주 평균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8). 이 중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의 경우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일반산주가 속해있는 소유면적 2 ha 미만(75.8%) 산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소유면적이 적을 경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의 규모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유지역별로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곳이 경상권(70.2%), 전라권(6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강원권(53.7%)에서는 산주들이 지원을 받아 사유림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주들의 소재지 거주 여부에 따른 사유림 경영 지원 사업의 미신청 이유에 대한 평가에서는 소재 산주 64.5%, 부재 산주 63.5%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이유중 하나로 “담보물이 부족해서”의 질문에서는 소재 산주 5.6%, 부재 산주 1.2%로 부재 산주가 담보물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인데, 이는 부재 산주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는 소재 산주보다 상대적으로 담보물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산주 유형, 소유지역, 소유면적, 소재 여부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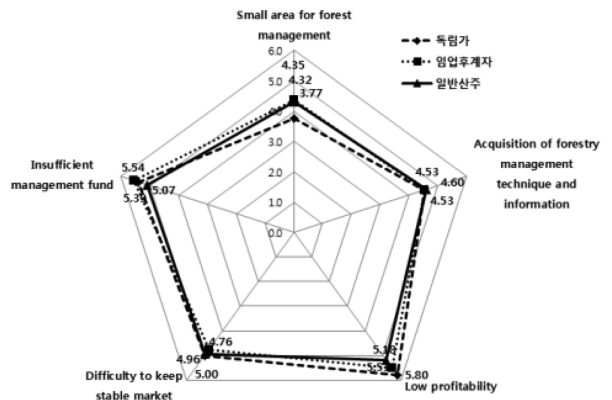


Figure 1. Difficulties on support of private forest management for forest owners.

Table 8. The reason of non-application on support system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Unit: %

| Classification | Unawareness of support system | Drop out of the support | Lack of collateral | Small amount of support fund | Others | Statistics (X ²) |
|----------------|-------------------------------|-------------------------|--------------------|------------------------------|--------|------------------------------|
| Average | 64.3 | 6.1 | 4.6 | 3.4 | 21.5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36.1 | 8.3 | 8.3 | 8.3 | 38.9 |
| | Forest successor | 43.0 | 12.4 | 11.6 | 7.4 | 25.6 |
| | Forest owner | 78.6 | 2.8 | 0.8 | 0.8 | 17.1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60.9 | 4.3 | 4.3 | 13.0 | 17.4 |
| | Gangwon District | 53.7 | 2.4 | 9.8 | 4.9 | 29.3 |
| | Chungcheong District | 62.0 | 10.2 | 7.4 | 3.7 | 16.7 |
| | Jeolla District | 64.6 | 5.3 | 1.8 | 1.8 | 26.5 |
| | Gyeongsang District | 70.2 | 4.8 | 3.2 | 2.4 | 19.4 |
| Owned area | Under 2 ha | 75.8 | 2.4 | 0.8 | 3.2 | 17.7 |
| | 2~5 ha | 55.7 | 7.2 | 5.2 | 1.0 | 30.9 |
| | 6~10 ha | 65.3 | 6.7 | 9.3 | 2.7 | 16.0 |
| | 11~50 ha | 53.3 | 12.0 | 8.0 | 6.7 | 20.0 |
| | Over 50 ha | 68.4 | 2.6 | 0.0 | 5.3 | 23.7 |
| Residence | Yes | 64.5 | 6.2 | 5.6 | 4.0 | 19.8 |
| | No | 63.5 | 5.9 | 1.2 | 1.2 | 28.2 |

34.795 (p=0.004)

24.419 (p=0.081)

76.915 (p=0.000)

25.2654 (p=0.000)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제도를 운영하는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의 관련 부처에서는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유림 경영의 애로사항

사유림 경영 지원에 있어 산주가 느끼는 어려움 정도(7점 척도)에 대해 전체산주 평균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성(5.44점)과 경영자금 부족(5.31점)이 산림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Table 9). 독립가는 낮은 수익성이 5.80점, 경영자금 부족이 5.39점, 안정적인 판매확보 곤란이 5.00점 등의 순으로, 임업후계자의 경우 경영자금 부족이 5.54점, 낮은 수익성이 5.51점, 안정적인 판매 확보 곤란이 4.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일반산주의 경우 낮은 수익성이 5.18점, 경영자금 부

족이 5.07점, 안정적인 판매확보 곤란이 4.9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항목별 어려움의 순위는 각각 다르지만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지역별로는 전라권이 낮은 수익성, 안정적인 판매확보곤란, 경영자금 부족 항목에서 각각 5.67점, 5.05점, 5.72점으로 타 지역보다 높아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7.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도움 효과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산주들은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평균적으로 85.6%(약간 도움 44.3% + 많은 도움 41.3%)가 지원을 받기 전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가가 86.1%(약간 도움 38.7% +

Table 9. Difficulties on support of private forest management for forest owners.

Unit : %

| Classification | Small area for forest management | Statistics (X ²) | Acquisition of forest management technique and related information | Statistics (X ²) | Low profitability | Statistics (X ²) | Difficulty to maintain stable sales | Statistics (X ²) | Insufficient management fund | Statistics (X ²) |
|----------------|----------------------------------|------------------------------|--|------------------------------|-------------------|------------------------------|-------------------------------------|------------------------------|------------------------------|------------------------------|
| | | | | | | | | | | |
| Average | 4.21 | | 4.56 | | 5.44 | | 4.90 | | 5.31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 4.53 | | 5.80 | | 5.00 | | 5.39 | |
| | Forest successor | 7.633 (0.001) | 4.53 | 0.256 (0.774) | 5.51 | 13.056 (0.000) | 4.76 | 1.814 (0.164) | 5.54 | 10.041 (0.000) |
| | Forest owner | | 4.60 | | 5.18 | | 4.96 | | 5.07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 4.40 | | 5.13 | | 4.65 | | 4.89 | |
| | Gangwon District | | 4.18 | | 5.16 | | 4.78 | | 5.20 | |
| | Chungcheong District | 0.970 (0.423) | 4.75 | 2.828 (0.024) | 5.50 | 3.931 (0.004) | 4.88 | 1.078 (0.366) | 5.34 | 9.017 (0.000) |
| | Jeolla District | | 4.56 | | 5.67 | | 5.05 | | 5.72 | |
| | Gyeongsang District | | 4.63 | | 5.36 | | 4.87 | | 5.05 | |
| Owned area | Under 2 ha | | 4.70 | | 5.28 | | 4.96 | | 5.22 | |
| | 2~5 ha | | 4.61 | | 5.48 | | 4.87 | | 5.46 | |
| | 6~10 ha | 28.191 (0.000) | 4.84 | 4.527 (0.001) | 5.37 | 1.066 (0.372) | 4.82 | 0.655 (0.624) | 5.33 | 2.545 (0.038) |
| | 11~50 ha | | 4.46 | | 5.55 | | 4.99 | | 5.41 | |
| | Over 50 ha | | 4.10 | | 5.46 | | 4.74 | | 4.98 | |

Table 10. Support effectiveness on private forest management.

Unit: %

| Classification | | Very helpful | A little helpful | Not at all | Statistics (X ²) |
|----------------|------------------------|--------------|------------------|------------|------------------------------|
| | | | | | |
| Average | | 41.3 | 44.3 | 14.4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47.4 | 38.7 | 13.9 | |
| | Forest successor | 43.9 | 37.4 | 18.7 | 19.049 (0.001) |
| | Forest owner | 28.7 | 63.4 | 7.9 |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32.4 | 58.8 | 8.8 | |
| | Gangwon District | 40.8 | 54.9 | 4.2 | |
| | Chungcheong District | 51.8 | 35.3 | 13 | 18.986 (0.015) |
| | Jeolla District | 42.0 | 45.4 | 12.6 | |
| | Gyeongsang District | 35.0 | 38.0 | 27 | |
| Owned area | Under 2 ha | 39.4 | 39.4 | 21.3 | |
| | 2~5 ha | 34.8 | 53.6 | 11.6 | |
| | 6~10 ha | 34.6 | 50.6 | 14.8 | 16.088 (0.041) |
| | 11~50 ha | 39.5 | 42.0 | 18.5 | |
| | Over 50 ha | 60.9 | 34.8 | 4.3 | |

많은 도움 47.4%), 임업후계자가 81.3%(약간 도움 37.4% + 많은 도움 43.9%), 일반산주가 92.1%(약간 도움 37.4% + 많은 도움 43.9%) 로 나타나 독립가나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은 독립가 13.9%, 임업후계자 18.7%, 일반산주 7.9%로 나타났다(Table 10).

소유지역별로는 강원권의 95.7%(약간 도움 54.9% + 많은 도움 40.8%), 경인권 91.2%(약간 도움 58.8%, 많은 도움 32.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상권은 73.0%(약간 도움 38.0% + 많은 도움 3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유면적별로는 51ha 이상의 95.7%(약간 도움 34.8% + 많은 도움 60.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 ha 미만에서는 78.8%(약간 도움 39.4% + 많은 도움 39.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8. 사유림 지원제도에 대한 산주의 전반적인 만족도

산주들이 사유림 지원제도 전반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산주 평균 35.1%(약간 만족 21.0% + 대체로 만족 11.7% + 매우 만족 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타났다. 보통은 39.4%로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의 경우 25.5%(약간 불만족 14.2% + 대체로 불만족 9.0% + 매우 불만족 2.0%)로 나타났다(Table 11).

산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독립가는 28.5%(약간 만족 21.2% + 대체로 만족 6.6% + 매우 만족 0.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38.0%, 불만족 33.6%(약간 불만족 19.0% + 대체로 불만족 11.7% + 매우 불만족 2.9%)으로 나타났다. 임업후계자는 36.8%(약간 만족 24.0% + 대체로 만족 9.9% + 매우 만족 2.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

였고, 보통 36.3%, 불만족 26.3%(약간 불만족 14.0% + 대체로 불만족 10.5% + 매우 불만족 1.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산주는 만족이 41.5%(약간 만족 15.8% + 대체로 만족 21.8% + 매우 만족 4.0%)로 나타났으며, 보통 46.5%, 불만족 11.9%(약간 불만족 7.9% + 대체로 불만족 3.0% + 매우 불만족 1.0%)로 나타나 자주 지원을 받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보다는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오히려 사유림 경영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역별로는 강원권이 53.5%(약간 만족 18.3% + 대체로 만족 32.4% + 매우 만족 2.8%)로 만족도가 타 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권은 22.6%(약간 만족 16.8% + 대체로 만족 5.0% + 매우 만족 0.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사유림경영 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별로 각각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립가는 57.8%, 임업후계자는 4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유림 경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절차 인지도 또한 독립가 56.6%, 임업후계자 43.5%, 일반산주 18.1%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유

Table 11. Level of satisfaction on support system of private forest management for forest owner. Unit: %, Seven-point scale

| Classification | Very dissatisfied | Dissatisfied | A little dissatisfied | Normal | A little satisfied | Satisfied | Very satisfied | No answer | Scale | Statistics (F) |
|----------------|------------------------|--------------|-----------------------|--------|--------------------|-----------|----------------|-----------|-------|----------------|
| Average | 2.0 | 9.0 | 14.2 | 39.4 | 21.0 | 11.7 | 2.4 | 0.2 | 4.14 | |
| Forest Manager | Sincere forest manager | 2.9 | 11.7 | 19.0 | 38.0 | 21.2 | 6.6 | 0.7 | 0.0 | 3.85 |
| | Forest successor | 1.8 | 10.5 | 14.0 | 36.3 | 24.0 | 9.9 | 2.9 | 0.6 | 4.12 |
| | Forest owner | 1.0 | 3.0 | 7.9 | 46.5 | 15.8 | 21.8 | 4.0 | 0.0 | 4.54 |
| Owned district | Seoul-Incheon District | 2.9 | 8.8 | 8.8 | 44.1 | 26.5 | 8.8 | 0.0 | 0.0 | 4.09 |
| | Gangwon District | 2.8 | 5.6 | 7.0 | 31.0 | 18.3 | 32.4 | 2.8 | 0.0 | 4.65 |
| | Chungcheong District | 2.4 | 4.7 | 14.1 | 38.8 | 25.9 | 8.2 | 5.9 | 0.0 | 4.29 |
| | Jeolla District | 0.0 | 10.9 | 24.4 | 42.0 | 16.8 | 5.0 | 0.8 | 0.0 | 3.83 |
| | Gyeongsang District | 3.0 | 13.0 | 9.0 | 41.0 | 22.0 | 9.0 | 2.0 | 1.0 | 4.02 |
| Owned area | Under 2 ha | 3.0 | 6.1 | 15.2 | 39.4 | 15.2 | 18.2 | 3.0 | 0.0 | 4.24 |
| | 2~5 ha | 1.4 | 13.0 | 7.2 | 39.1 | 24.6 | 8.7 | 4.3 | 1.4 | 4.18 |
| | 6~10 ha | 2.5 | 4.9 | 17.3 | 37.0 | 18.5 | 18.5 | 1.2 | 0.0 | 4.25 |
| | 11~50 ha | 1.9 | 10.8 | 15.9 | 37.6 | 22.9 | 8.9 | 1.9 | 0.0 | 4.03 |
| | Over 50 ha | 1.4 | 7.2 | 13.0 | 46.4 | 18.8 | 10.1 | 2.9 | 0.0 | 4.16 |

6.382 (p=0.000)

3.714 (p=0.000)

1.205 (p=0.307)

림 경영 지원 사업 경험여부의 경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는 각각 79.2%, 58.6%로 나타났으며, 일반산주의 경우 28.6%만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산주들이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전체 산주 평균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의 경우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사유림 경영 지원에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모두 낮은 수익성, 경영자금 부족, 안정적인 판매확보 곤란을 높게 꼽았으며 항목별 어려움의 순위는 산주 구분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특히 경영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에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정도를 물어본 결과 독립가의 경우 86.1%, 임업후계자의 경우 81.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산주의 경우 92.1%로 나타나 오히려 지원횟수나 금액이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전반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산주 평균 35.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독립가는 28.5% 임업후계자는 3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산주는 41.5%로 나타나 오히려 자주 지원을 받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보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오히려 사유림 경영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반산주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경험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유림 경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도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비하여 일반 산주의 경우 산림에 대한 관심이 낮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모든 산주들이 공통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금액의 확대, 용자 상환기간의 연장과 용자에 대한 이윤의 하향 조정 등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원제도의 효과정도와 만족도는 오히려 일반산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 보

다 지원 빈도가 낮은 일반산주가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는 산림 경영에 적극적인 반면 일반산주들은 산림을 단순 소유개념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해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 산림경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Cho, E.H. and Koo, S.H. 1984.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Forest Owners' Knowledge of Forestry Practic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66: 37-44.
- Kim, J.K. 1984.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67: 17-27.
- Kim, J.K. 1988. Logic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for the Private Forest.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77(2): 242-251.
- Kim, N.G. 1992. A Study on Landowners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and Incentive Policies for Private Forest Investment.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p. 149.
- Kim, H.S. 2011. A case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and Situations of the Agriculture Support Policy for a Farmhouse Unit.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p. 92.
- Kim, H.J., Kim, H.H., and Kim, E.G. 2014. Phenomenon of Private Forest Fragmentation in City combined with 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8(3): 1-11.
- Kim, H.J., Kim, H.S., and Lee, S.H. 2014. Present Situation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gro-forestry in Private Forests of Korea.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8(4): 35-45.
- Kim, H.S., Park, S.I., and Lee, S.H. 2015. an Attitude of Forest Owner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Management-Scale Improvement on Private Forest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6): 57-63.
- Korea Forest Service. 2013.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pp. 490. (In Korean)
- Seo, Y.W. and Choi, J.C. 2001. Comparison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Forest Investment by the Type of Private Forest Land Owner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0(5): 643-649.